

한국일보

'두 대통령'에 이어 '두 국회의장'.. 혼돈의 베네수엘라

한국일보 입력 2020.01.06 17:29



후안 가이도 국회의장 겸 임시 대통령이 5일(현지시간) 수도 카라카스에서 경찰의 저지에 맞서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동안(왼쪽), 여당 의원과 친정부 언론 등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의사당 안에서 마두로 대통령측 인사인 루이스 파라 의원이 새 의장으로 선출돼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. 카라카스=EPA·AFP 연합뉴스



5일(현지시간)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국회의사당에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측 인사인 루이스 파라 의원이 국회의장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. 카라카스=EPA 연합뉴스



5일(현지시간)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서 여당 의원들이 마두로 대통령측 인사인 루이스 파라 의원을 거수로 국회의장에 선출하고 있다. 카라카스= AP 연합뉴스

경제난과 이라는 초유의 사태로

'한 나라 두 대통령' 체제로 혼란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5일(현지시간) '한 나라 두 국회의장' 시대를 맞게 됐다.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측 인사인 루이스 파라 의원이 새 국회 의장으로 선출되면서다.

이날 마두로 측 여당 의원들은 미국 등 50여개국으로부터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겸 임시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의 의사당 진입을 경찰이 막고 있는 사이 루이스 파라 의원을 새 의장으로 기습 선출했다. 새 의장이 선출되자마자 선서와 수락 연설까지 마치면서 베네수엘라는 또 다시 혼돈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.

정리=박주영 bluesky@hankookilbo.com



5일(현지시간)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겸 임시 대통령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. 카라카스=EPA 연합뉴스



5일(현지시간) 의사당진입을 시도하는 후안 과이도 임시 대통령 겸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들이 경찰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.
카라카스=EPA 연합뉴스